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

작자미상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 앞에서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남들 앞에서는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을수도 있는 문제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못 참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허물없다는 이유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편한 관계라는 핑계로 발가벗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흔합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뜨거운 불은 화살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불을 지른 쪽은 멀쩡할 수 있지만 불길에 휩싸인 쪽은 크건 작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불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입은 화상이야 말로 오래오래 흉한 자국으로 남습니다. 내 곁에 가까이 있어서 나 때문에 가장 다치기 쉬운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화상 자국을 가족들에게 남겨왔던가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이에게 함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이의 가슴에 남긴 그 많은 상처들을 이제는 보듬어 줄 때인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를 주기보다는 나로 인해 기쁨을 줄수 있고 나로 인해 모든이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 주어야겠습니다.



◀그리운 날의 흑백TV▶ 형사 콜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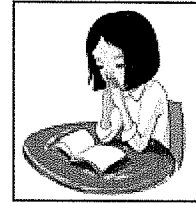
LA의 강력계 형사인 콜롬보는 살인사건을 해결하는데 뛰어났습니다. 남루한 행색에 낡은 차로 사건현장에 나타났지만 완벽한 증거제시로 범인을 체포하는 그의 추리능력에 모두들 통쾌함을 느끼며 TV앞에 앉아있게 하였습니다.

콜롬보 역할을 했던 성우 최용천씨와 배한성 씨의 독특한 목소리는 더욱 콜롬보 형사의 매력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이었어도 똑똑했던 형사 콜롬보는 흑백의 명암 속에 살지만 아름다운 희망의 색을 품고 살아가던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8권 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2월 19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누가 먼저?

최용우



아픈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냐" 하면서 기도한대로 다 들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시지요? 아무리 떼굴떼굴 구르며 부르짖고 금식기도를 해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가 믿어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마9:28)

하나님은 '먼저 믿으면 다 들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기도를 들어 주시면 잘 믿어 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끝없이 평행선을 달려봐야 손해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에 대한 변항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안정이 생긴다.
영원한 인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침착한 사람이다

◀인품따라 행하기▶

남몰래 하는 선행은 땅 속을 흐르며 대지를 푸르게 가꾸어 주는 지하수 즐기와 같은 것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매제는 갈 곳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9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7 (시 16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135장	다 같 이
기 도 Pray		김영길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5:1-11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조심하는 믿음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89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 내
5	김교섭	이영성		<분당>노은숙 김순자
12	김순자	이재운		
19	김영길	이지형		<입구>정덕수 이재영
26	지찬영	정성호		

◆2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5	러시아합창단 *남선교회(3) 방문 *구역예배(10)
12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4)
19	여성교회(24) "여성만의 Heaven"
26	이삭줍기주일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이사, 이민으로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1. 교우소식
*<기도해 주세요> 김소연 권사(백제성, 장유진 집사). 수술을 기다리고 계
십니다.
2. 2006년 여성교회 모임 <일시> 24일(금) 저녁 7시30분
<장소> 최연장자 가정 or 자원 가정
*2개월에 한 번씩 여성교회 모임을 "여성만의 Heaven"으로 가져주시기 바
랍니다. 이번 모임에 임원선출과 선교, 봉사등 좋은 일 하나 올 한해동안 할
수 있을게 없을 지 의논해 주세요. 그리고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여성만의 Heaven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끝없는 애기와 웃음이
창문을 넘어 나면 더 좋습니다.
3. 제1여성교회 모임 <일시> 오늘 예배 후 Tea Time을 하면서 모입니다
4. 밀알장애자 식사준비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매월 넷째주 토요일).
*문의: 현석호 집사, 임병숙 권사
5.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55분>
*새벽이 오리라는 것을 알아도 눈을 뜨지 않으면 여전히 밤중일 뿐입니다.
가족, 사업, 건강을 위해 차창 새벽이슬 닦고 나오는 새벽기도 길, 축복을
향한 앞가름입니다.
6. "월초 새벽기도" (예고). <일시> 3월 1일 새벽 5:55분
*매월 1일에는 한 달동안 살아가야 하는 삶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나님께 아뢰며 부탁드립니다.

◀착한 시인▶ 미니 스커트 박경철

한쪽다리가 절단된
아름다운 숙녀의 미니 스커트.
나는 그것으로 그녀가
드디어 가혹한 운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알았다.
그녀는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당당하게 이긴 것이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
그녀의 한쪽 다리만큼
아름다운 감동을 줄 것이며,
어떤 강인한 자가 있어
그녀의 승리보다 더 단단한 승리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저기에서 오는 눈길에
마음 두고 살다보면 나를 잊
고 살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나를 타인과 견주며 살다보면
가혹한 세상에 쉽게 절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럴때 "나는 나다"고 외칠
수 있음은 용기있는 감동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이기기 보다 나를 이
겨가며 살아 낼 줄 아는 진정
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주변
에 의외로 많습니다.